

민선4기 충청남도 광역·기초단체장



충청남도지사 | 이완구



천안시장 | 성무용



공주시장 | 이준원



보령시장 | 신준희



아산시장 | 강희복



서산시장 | 조규선



논산시장 | 임성규



계룡시장 | 최홍묵



금산군수 | 박동철



연기군수 | 이기봉



부여군수 | 김무환



서천군수 | 나소열



청양군수 | 김시환



홍성군수 | 이종건



예산군수 | 최승우



태안군수 | 진태구



당진군수 | 민종기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천안시도의원 | 홍성현



천안시도의원 | 정순평



천안시도의원 | 김문규



천안시도의원 | 정종학



공주시도의원 | 송민구



공주시도의원 | 박공규



보령시도의원 | 김동일



보령시도의원 | 백낙규



아산시도의원 | 이기철



아산시도의원 | 강태봉



서산시도의원 | 이창배



서산시도의원 | 차성남



논산시도의원 | 송덕빈



논산시도의원 | 송영철



계룡시도의원 | 김성중



계룡시도의원 | 조치연



금산군도의원 | 김석곤



금산군도의원 | 유태식



연기군도의원 | 유환준



연기군도의원 | 황우성

제8대 충청남도의회의원



부여군도의원 | 홍표근



부여군도의원 | 유병기



서천군도의원 | 송선규



서천군도의원 | 오세욱



청양군도의원 | 이정우



청양군도의원 | 최의환



홍성군도의원 | 오배근



홍성군도의원 | 아은태



예산군도의원 | 고남중



예산군도의원 | 김기영



태안군도의원 | 유익환



태안군도의원 | 강철민



당진군도의원 | 김홍장



당진군도의원 | 이종현



비례대표 | 이명례



비례대표 | 이선자



비례대표 | 황화성



비례대표 | 박정희

제35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취임식



- 李完九 충남도지사 겸소한 취임식 가져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자신감 돋보여 -
- 경제적 어려움 감안 대폭간소화 예산절감 -

李完九 충남도 지사는 3일 도청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각계 각층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이래 가장 겸소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오전에는 현충원 참배, 간부신고, 사무인계인수서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으며, 오후에 개최된 취임식은 국민의례, 약력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등을 끝으로 간소하면서도 품위 있게 진행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자면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충남 도정이 추구해야 할 5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 둘째, 함께 하는 복지사회, 셋째,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 넷째, 지역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역동적인 산업기반 구축, 다섯째,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역설하면서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충남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자"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06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의 개최

—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원 활성화 방안 논의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4월 20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9명과 연구원 10명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번이 5번째를 맞이하여 신규 자문위원 상견례, 연구원 현황청취, 운영자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에서 차미숙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지역단위의 정책분석이나 평가 등 현장중심 연구”를, 지진호 교수(건양대)는 “지역대학과 충남발전연구원간 정보교류와 연구협력”을, 이선하 교수(공주대)는 “교통분야 연구확대”를, 윤홍렬 교수(남서울대)는 “지역별 브랜드 개발”을 연구원 차원에서 추진 하도록 자문하였다. 또한 오필환 교수(천안대)는 “청소년관련 연구”를, 오덕성 교수(충남대)는 “적극적인 브레인폴제 활용”을, 성정경 위원(前대사)은 “세계화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공동연구”를, 박경 교수(목원대)는 “서비스업 역량축적 방안”을, 김태명 교수(한남대)는 “연구수요 확대 및 연구분담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를 주관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연구원이 도정정보의 결집체로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커다란 물줄기 속에서 충남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대변하는 공익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위원들이 개진한 자문내용을 각 분야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시·군 워크숍 개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은 4월 11일에서 4월 19일까지 7일에 걸쳐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의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남도는 그 하위계획인 도3차 종합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본 수정계획은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의 성격,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성격,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부문적 성격, 시·군종합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순회 워크숍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와 각 시·군의 발전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본 수정계획에 담고자 하는 시·군의 현안 및 사업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수정계획은 계획시안이 작성되면 지역별 공청회를 통하여 재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 말에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3차 충남환경포럼: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에서 주관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에 관한 제3차 충남환경포럼이 지난 4월 21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도 관계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백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 멸종위기동물 소개, 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유형,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3년) 실시에 따른 생물종 서식 및 분포실태, 충청남도내 주요 생물서식지 및 생물종 분포실태, 서식권역별 생물종 복원정책, 생물서식지 복원 로드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해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신동현 충청남도 사무관,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5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충청남도내 각 시군이 선정한 깃대종은 시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지역적 특징에 부합하는 종으로 재조정하여야 하고, 충청남도에 존재하는 생물서식지에 대한 정보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향후 충청남도 여건에 적합한 생물서식지 복원모형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충남환경포럼은 보다 건전하고 지속적인 충청남도 자연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도 내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년 5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생태네트워크 구축,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생태자원 관리 등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제2기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

— 3월 30일 목원대학교 대덕컨벤션타운에서, 2006년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3월 30일 목원대학교 대덕컨벤션타운에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기 충남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06년도 제2기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임원단 선출, 혁신발전5개년계획 지역평가방법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제2기 위원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2년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 총 56명이(기획조정분과 11명, 첨단산업분과 11명, 농업바이오분과 11명, 문화관광분과 11명, 인적자원분과 12명) 위촉되었다.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의장 및 부의장, 분과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 의장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용웅 원장, 부의장으로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공동대표와 에버테크노(주) 정백운 사장 등이 선출되었다.

이날 새로이 의장으로 선출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혁신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제 2기 신규위원을 중심으로 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지역혁신 발전 계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전북지역 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 심포지엄 가져

— 5월 19일 전북도청에서, 시·도인적자원개발담당자 등 100여명 참석—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공동으로 5월 19일 오후2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이형규 전북도행정부지사, 전국 RHRD센터 관련자, 시·도인적자원개발담당자, 시·도교육청담당자, 도내 초등학교담당자, 이주여성 관련기관, NGO,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전북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RHRD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최근 한국계 美풋볼 하인즈 워드 선수의 방한에 따라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혼혈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지역의 해외이주 결혼가정이 급증하고 이들의 가정 정착과정 및 적응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자녀의 경우 가정내 학습 습득이 어려워 언어발달 장애, 학습능력 저하 등 취약한 기초인적자원의 성장기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충남·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는 해외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지역의 정책네트워크의 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용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의 ‘범정부적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역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사례에 대한 부문에서는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윤애란 우리가족상담센터 소장의 ‘충남 해외이주결혼가정 RHRD 정책사례’ ▷이현선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센터장의 ‘전북 해외이주결혼가정 정책사례’ 등 생생한 현장 체험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결혼이민자가정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